

누구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행 약자를 위한 여행 정보 플랫폼을 만들다



기업명 KinK 대표 도민준

연락처 010-4203-6700 이메일 d01042036700@gmail.com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훈로 91,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1층 110호

여행 약자의 시선에서 여행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KinK

도민준 대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형의 재활을 위해 가족 여행을 자주 다녔다.
여행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에 여행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여행 약자들도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여행 정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Q. 경남관광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어떻게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지?

경남 곳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의 아픔이나 민족의 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도 많고 숨겨진 맛집이나 아름다운 풍경도 많아요. 여행 에세이를 통해 경남의 숨은 매력을 찾아낸 경험을 전달한다면 독자들에게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동경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행 에세이 출판 사업을 통해 경남의 다양한 여행 경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Q.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는 평소 여행 약자와 무장애 여행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지원하면서 여행 약자를 위한 여행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입주 초창기에는 막연

하게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멘토와 만남을 주선해 주어 사업 경험을 공유 받고 사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현재 구체화한 시제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Q. 2020년 입주기업으로서 2021년 입주기업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1년에 입주하신 분들을 보니 각자 사업에 있어서 잘 해내고 계신 듯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의 사업에 서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기수에 상관없이 모두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동료'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여행 약자를 위한 정보는?

여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 정보 ‘경남정음여행본’

KinK 도민준 대표는 장애를 가진 형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이동권 중심의 협소한 무장애 여행의 개념을 벗어나 여행 약자의 시선에서 정보를 제공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여행지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은 인터넷만 켜도 다양한 여행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약자, 장애인 등 여행 약자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여행 약자와 가족들은 여행을 포기하거나 여행지를 찾아가더라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누릴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가 여행 약자들에게는 사치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도 대표는 누구라도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독립 여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무장애 여행 정보 플랫폼 ‘경남정음여행본’을 만들고 있다. ‘경남정음여행본’은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아



이디어를 얻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든 것처럼, 여행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평등하고 공평한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경남정음여행본을 만들게 된 것이다.

누구나 여행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경남정음여행본’

경남정음여행본은 여행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공공성, 공익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약자 중심의 여행 정보를 모아놓은 공간이다. 예를 들어 아토피 가족을 위한 여행 코스나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여행 코스, 가족 중에 고령자가 있을 경우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여행 코스 등 다양한 코스별 관광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관광지 주변의 맛집과 숙박시설, 체험활동 등 기본 여행 정보는 물론이고 휠체어나 안내견 출입 여부, 점자블록 설치 여부 등 여행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도 대표는 이를 위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인터넷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비공개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KinK 여행정보 채널을 따로 개설해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사업 확장을 위한 발돋움

도 대표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을 주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 1년간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면서 사업이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 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업 아이템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은 시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여행 작가 발굴 및 에세이 출판

KinK는 무장애 여행 정보 제공뿐 아니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작가를 발굴하고 여행 에세이 출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여행 작가가 되고 싶거나 여행 관련 에세이를 출판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 에세이집을 제작한다. 누군가는 여행 작가의 꿈을 이루고, 개인의 다채로운 경험이 담긴 에세이집을 판매함으로써 경남의 여행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경남의 숨은 매력이 세상에 드러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에세이집을 통해 여행 작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행지를 개발하고 그 여행지에 특화된 기념품을 개발해 정보와 상품으로 동시에 여행지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 대표는 여행 작가를 모집해 에세이집 발간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시각장애인 중심 점자도서도 출판하면서 여행뿐 아니라 에세이집도 누구나 읽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다.

“경남 관광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에요.
언제든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KinK도 좋은 여행을 위한 정보를 주고, 여행의 기억을 에세이로 남겨
경남을 빛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여행 정보로,
여행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로.

KinK, 따뜻한 경남 여행을 만들다

일상처럼 소소하지만 편안한 여행을 꿈꾸다

“다들 여행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경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상처럼 소소한 여행’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집 앞에 산책 가듯, 아무 문제없이 배려받으며 걸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경남에 가득하길 바라요.”
여행 약자에게는 문제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때문에 여행 약자를 배려하는 여행지가 많이 늘어나고, 여행지 정보가 친절하게 여행 약자에게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이 있는 등산로가 개발된다면, 도 대표가 원하는 ‘경남정음여행본’의 한 페이지가 채워질 것이다. KinK 도민준 대표는 앞으로 경남정음여행본의 페이지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여행 정보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고 있다.